

나는 人道로소이다

市 隱

나는 늘 누워있습니다

내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

가끔 움푹움푹 패여있는 흙몸의 친구들에게 연민이 가기도합니다

철몸의 친구는 서울길에 잠깐보고 여태 못만났습니다

요즈음은 아스콘으로 치장한 친구들이 부럽습니다

나는 늘 누워있습니다

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

나는 무척 게으르답니다

그렇지만 누구의 발길도 거부하지 않는답니다

가끔 비가 내려 샤워를 할 때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

나는 늘 밝힙니다

아가들의 맨발이 내몸을 간질일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

아침이면 학교로 직장으로 쿵쿵발자육에 덩달아 힘이 솟습니다

석양무렵 노신사의 지팡이에 문득 내나이를 떠올려 봅니다

지금 나는 이 도시의 모퉁이에서 이름없이 패여가고 있습니다

나는 늘 밝힙니다

다정한 연인들의 경쾌한 걸음에 내가슴도 설렙니다
아득한 옛날 흠뻑이던 시절 나도 애인이 있었답니다
내사랑은 아직도 그 시골길에서 하릴없이 늙어가고 있겠지요
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...

나는 늘 밝힙니다

한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지난여름 어느날 밤
유모차들이 내몸위로 지나갔습니다
손에손에 촛불을 들어 미사에 가는 마리아같았습니다
여린 손길 하나가 내몸위에 촛불을 켜주었습니다
까맣게 잊었던 저 깊은곳에서 용암이 불끈불끈
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설 뻔하였습니다
아! 그러나 밝히는 것이 나의 숙명입니다
잠깐 사이 군홃발들이 내몸을 짓이기고 사라졌습니다
흘러내린 촛농은 님의 눈물자국이었습니다

나는 늘 밝힙니다

나는 車道가 못되면 뜯겨져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됩니다
이제는 아스팔트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답니다
아! 그 고향, 내 아직 흠뻑시절 온 몸뚱이에 들풀이 무성했지
비가오면 패일까 풀잎들이 펼쳐주었지
바람불면 깎일까 바람보다 먼저 누워주었지

나는 오늘밤에도 누워있습니다

차가운 별빛에 내몸가득 서리를 흠뻑 머금습니다

내년 봄에는 不毛의 이몸에 꼭 풀씨를 받아야지
오늘밤 사무치게 몸부림치며 비틀어봅니다
아! 몸뚱이에 실금이 한올두올 터져갑니다
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
내 부끄러움을 하얗게 매장하겠다는 듯이¹⁾

1)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운 아침, 창가에서 담배를 물고 밖을 보다가 6층이나 아래 鋪道를 걸어가는 발자욱 소리들이 너무 생생하여 문득 떠오르는 단상 몇 줄을 적어본다. 2008. 11. 26.